

2015 SPRING Vol. 25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풍경

風景



「오래된 이웃, 화교」 특별전

인천은 서울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산동반도와 인접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인력과 문물 교류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 개항과 함께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였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유입되어 변화를 많이 겪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우리 역사에 있어서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표본과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천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에 대한 역사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2014년도 하반기 기획특별전으로는 이러한 인천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 차이나타운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시 진행도 차이나타운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 그곳에 사는 화교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의 이름은 인천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세 개의 패루에서 따왔다.

1부. 중화가(中華街) : 공간_차이나타운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에 내리면 만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 차이나타운. 역사를 나오면 찾길 건너 붉은색으로 차이나타운을 뜻하는 '중화가(中華街)'라 쓰인 회색의 큰 패루가 보인다. 패루를 지나 언덕을 올라가면서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치장된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음식 중 하나인 짜장면을 비롯하여 각종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청요리집과 만두·월병·공갈빵 등이 길거리에 즐비하고, 각종 한자가 적힌 화려한 간판과 용문양 등은 이곳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독특함을 즐기자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조선의 그리 크지 않은 어촌이었던 이 장소가 중국의 거리로 변모하게 된 것은 1884년 조선과 청의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다.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을 제압한 오장경의 부대를 따라 들어온 화상(華商)들이 교역의 거점으로 삼아 인천에는 화상조계가 형성되었고, 청국영사관이 자리 잡아 청국조계·청관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지나정(支那町)과 미생정(彌生町)으로 개칭되었고, 해방을 맞아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뜻의

선린동(善隣洞)으로 붙여졌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때의 모습이 나타난 석판화와 조약문, 지도와 사진엽서 등을 배치하였다. 뒤이어 해방 이후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구변천표를 보여주고 1970~80년대부터 차이나타운의 쓸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김보섭 사진작가의 흑백사진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꺾어지는 면에 앞서의 모습과 상반되어 보이도록 관광객이 많은 화려한 현재의 차이나타운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 쓸쓸함이 남은 삶의 공간이라는 모습이 드러난 조오다 선생님의 칼라사진들을 배치하였다.

2부. 인화문(仁華門) : 사람_인천 화교 사람들

2부에서는 인천 화교사들이 130여 년에 걸쳐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3개의 세대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1, 2세대를 표현한 〈왕ㅇㅇ씨 이야기〉에서는 최초 화교상인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번성하던 모습에서 점차 질서와 오해 속에 멀어지는 해방 이전 화교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또한 6·25를 겪으며 참전용사로서 이 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화교협회를 통하여 자신들끼리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는 모습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을 '화교상인' - '우리 속에 스며든 사람들' - '갈등과 시선' - '경계의 사람들' - '화교협회'이라는 작은 주제로 묶어 전시하였다.

3, 4세대를 표현한 〈진ㅇㅇ씨 이야기〉에서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화교학교의 유물들과 관우사당의 재현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한편, 그 이전까지 무역상·재단사·농사꾼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화교들이 한국 정부의 탄압 속에 결국 중국집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표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6·25세대로도 불리는 화교 5, 6세대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화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점차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할 것인 많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유물없이 적어두는 것으로 2부를 마무리하였다.



3부. 선린문(善隣門) : 이웃, 그리고 변화



3부의 제목이자 차이나타운 제3패루인 선린문은 이 지역의 명칭인 선린동(善隣洞)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이 동명(洞名)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일제 식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외국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서로 선한 이웃으로 남길 바라며 지어졌다. 그러 한 바람 속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를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를 3부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범한 시민들 속에 자리 잡은 화교의 이미지를 인터뷰하고, 한편으로는 화교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여 영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화교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담은 뉴스자료와 각종 집회의 모습들로 현대를 살아가는 화교의 단면들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서로 어울려가는 한중문화축제의 모습을 통하여 밝은 미래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전시를 마치며

이 전시는 화교의 입장을 대변하려거나 '이해'라는 부분 외에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화교와 관련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오해나 편견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고민과 깊은 이해보다는 초보 학예사로서 겪는 시행착오 속에서 제때 하지 못하거나 빠트린 것들이 많은 전시였다. 그러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다른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했다. 동시에 주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했다. 전시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의 것들에 급급해하고, 전시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에 생각이 많았다. 때문에 기획자의 의도가 전시에 충실히 스며들었다 하기도 어려웠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도 많이 드러내었다.

끝으로 많은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던져주시고, 자료의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글·김동근(전시교육부)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우성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신은영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용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CONTENTS 2015 SPRING Vol. 25

- 02 전시리뷰
「오래된 이웃, 화교」 특별전
- 04 기획기사 I
일본 근대판화로 본 조선
- 06 박물관 소장 유물
청일전쟁의 시작과 고승호
- 08 인문도시 지원사업
'개항장과 산업단지를 넘어 인문도시로'
인천 인문도시지원사업
- 10 기획기사 II
니시키에(錦絵)로 보는 전쟁과 일본
- 13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③
오래된 영화에서 과거를 배우다
동검도 DRFA 365 예술극장
- 14 청소년 기획
인천을 알리는 로고들
- 16 박물관 어린이 교육
가자! 박물관으로
- 17 박물관 소식
전시, 교육, 행사
- 20 소장유물
조선국풍도충일청대적전지도
(朝鮮國豊嶋沖日淸大激戰之圖)

COVER STORY

제물포역에 내리면 바다가 안 보인다.



"계미일(5월 17일) 해안 북쪽에는 옛 제물포 진영이 있는데 부서진 기와와 무너진 성가퀴에 초목이 무성하였다. 동남쪽 먼 곳을 바라보니 섬들이 바다에 점점 떠 있는데 석양이 피처럼 두르고 있었다. -중략- 여명에 갑자기 한 조각 푸른 섬이 보이더니 점차 또렷이 시야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바로 월미도의 행궁이었다. 심 수리를 내려가 다시 제물포 진영 앞쪽에 배를 대었다. 포구의 마을에서 아침을 먹고 인천으로 들어왔다." 정조 때 좌의정을 지냈던 몽오 김종수(夢梧 金鍾秀, 1728~1789) 일행이 영종도 서쪽 큰 바다로 나갔다가 바람과 안개로 밤새 표류한 끝에 겨우 월미도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몽오집(夢梧集)〉권 4, 기(記), 〈부해기(浮海記)〉에 기록한 병자년(1756) 5월 당시 제물포의 풍경이다. 제물포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29 도화1동〉에 내리면 바닷바다와 갯벌새 북적이는 포구같은 곳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곳엔 마른 갯벌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해초 님은 사람들이 수봉산 철탑 너머로 신새벽 어둠 건너내며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고 있다.

※ 「박물관 풍경」의 2015년 표지사진 글은 인천의 낯선 풍경을 주제로 합니다.

일본 근대판화로 본 조선

글 • 김윤애(문화역서울 284)



그림 1) 오슈 차카노부(楊洲周延) 〈정한론지도〉, 1877.

19세기 자포니즘(Japonism)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우키요에(浮世繪)는 일본 전통목판화다. 일본의 풍속과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우키요에는 공예품을 수출할 때 포장지로 활용될 만큼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것이었고, 유럽의 예술가들은 포장지로 함께 건넌 우키요에를 통해 일본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세기 서양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 고흐와 모네 또한 우키요에를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한 바 있다. 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구성과 강렬한 색채의 목판화, 유럽인에게 이국적일 수 밖에 없었던 동양의 모습은 많은 유럽인을 사로잡았다.

자포니즘의 원동력이 된 우키요에를 통해 유럽의 예술가들이 영향을 받았듯 개항 이후 일본도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많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 예술의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원근법의 사용이다. 판화 분야에서는 발달된 서양의 인쇄기술의 유입으로 다양한 판법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묘사력 향상과 화려한 색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특히 석판화의 유입은 기존의 목판화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유려한 선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회화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기존의 우키요에 보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사물

의 고유한 색을 재현한 컬러판 판화인 니시키에(錦繪)가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메이지시대(1868~1912년)로 접어들면서 우키요에는 점차 보도적인 성격이 강화됐다. 당시 판화는 화제가 되는 사건이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서지학자인 사쿠라이 요시유키(櫻井義之)는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중기의 판화가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시 신문이나 신문의 부록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미술교육자인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 “역사화는 즉 과거의 우키요에이며 따라서 우키요에는 현재의 역사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일본은 우키요에를 ‘역사화’라고 부르며 장려했다. 일본은 우키요에를 통해 서구열강과 동등한 동아시아 맹주로서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했다. 메이지시대에는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임오군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등 한·일관계에 많은 변화를 준 사건들이 발생했다. 당시의 사건을 묘사한 판화에는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국 일본을 시각화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금부터는 조선과 관계된 주제의 우키요에를 통해 일본이 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구축해나갔는지 살펴보겠다.

정한론

정한론(征韓論)은 1870년대를 전후해 일본에서 대두된 조선에 대한 공략론으로 막부말기의 ‘대조선 내셔널리즘’이 집약돼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외교관계를 제안했지만, 조선은 일본이 우위로 설정된 외교관계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한편 그 사이 일본은 1871년 청나라와 대등한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청일수호조약에 힘입어 일본은 다시 조선을 자신들의 아래에 놓는 외교관계를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그마저 여의치 않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은 외교문서를 수리하지 않는 조선의 태도가 일본을 모욕한 것이라며 정한론을 주장했다. 정한론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부분 ‘정한’ 대 ‘비(非)정한’ 두 파간의 대립구도를 보여준다. 그림 1 역시 좌우로 대립된 구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려진 인물을 살펴보면 중앙에 등을 보이고 앉은 사람이 정한론을 주장한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이고 오른쪽에는 정한파 시마즈 히사미츠(島津久光)가 마주 앉아 있다. 그의 옆으로는 모자를 벗어던진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항의하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정한파 주장)가 서 있다. 이들의 반대편에는 비(非)정한론자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중앙의 소에지마 다네오미를 가리키고 있다. 그 뒤에 흰 옷을 입은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이, 그의 앞에는 정한반대파의 주장인 오후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논의의 현장을 응시하고 있다.

청일전쟁

1894년에서 이듬해까지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제국주의적 대외 진출을 도모, 조선에서의 패권을 더 강화하려고 했다. 많은 화가들은 청일전쟁의 실상을 우키요에로 제작했고 자국민들은 이를 보며 환호했다. 근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군에 비해 청나라의 군사들은 창과 칼을 지닌 빈약한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시켜 ‘문명인’으로서의 일본인과 그렇지 못한 청나라인의 모습으로 대비시켰다. 또 힘차게 나부끼는 일장기와 욱일기(旭日旗)는 일본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제국 일본’을 강조했다.

러일전쟁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군항(旅順軍港)을 기습하면서 시작된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 이 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러일전쟁을 주제로 한 판화에서는 청



그림 2) 일러평양부근총돌도, 1904.



그림 3) 청일평양격전도, 1894.

일전쟁에서의 청군을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기양양한 일본군에 비해 의기소침한 러시아 병사를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로스케(露助)’라는 단어도 종종 볼 수 있다.

우키요에는 청일전쟁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린 후 점차 쇠락했다. 이는 무엇보다 사진의 영향이 컸다. 우키요에의 주요 주제였던 배우 그림이나 미인화는 사진의 브로마이드로, 풍속화와 전쟁화는 삽화잡지로 대체됐다.

근대 조선과 연관되거나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우키요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욕과 왜곡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우키요에는 화려한 색과 긴장감 있는 구성을 통해 당대 일본인의 세계관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조선에 대한 내용을 다룬 우키요에들에서는 마치 식민지를 바라보던 서구 열강과 흡사한 제국주의적 시각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일전쟁의 시작과 고승호

19세기의 조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이 점차 심화되던 시기였다. 그렇게 우리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120년이 되었다.

청일전쟁과 인천

개화정책 추진에 반발하여 일어난 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고 개화정책이 위축되었다. 이후 급진 개화파가 위기를 맞고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그 결과 1885년 청과 일본은 조선 내 세력균형을 위해 조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향후 조선에 출병할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지한다는 텐진조약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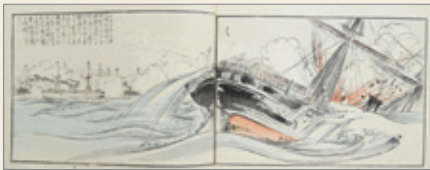
1894년 5월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면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는 청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이후 청군이 아산에 상륙하고 며칠 뒤 인천에 일본군까지 상륙한다. 청일 양국의 출병으로 양국관계가 험악해지고 각국 군함들도 정황을 살피기 위해 인천에 빈번히 내항하였다.

7월 25일 오전, 청군 군함 제원호, 광을호가 청나라 군대를 아산에 상륙시키는 임무를 마치고 중국 여순으로 회항하던 중이었다. 이때 미리 풍도 앞바다에서 기다리던 일본 순양함 요시노호, 아키츠시마호, 나니와호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풍도해전(豊島海戰)이 시작되었다. 청군 제원호는 백기를 달아 일본에 항복했고 광을호는 도망쳤다.

일본군함이 제원호를 추적하던 중 또 다른 배가 눈앞에 나타났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아산만으로 향하던 청군 함대인 정찰함 조강호, 상선 고승호였다. 아키츠시마호는 조강호를 추격하여 나포했고 조강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나니와호는 고승호를 향해 닻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니와호를 따라 올 것을 요구했다. 고승호의 영국인 선장은 전함에 맞서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군함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청군 지휘관은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명령에 불응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30분 만에 고승호는 침몰하고 말았다. 약 1천여명의 청군이 바다에 빠졌지만 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선장과 독일인 장교 등 몇 명의 유럽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대부분 구조가 되었다.

풍도해전 이후 일본은 청 군함이 일본 군함에 대해 포격을 했다는 구실로 청국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본격적인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성환전투, 평양전투 등에서 청나라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이듬해 2월 청나라의 항복으로 청일전쟁은 끝이 났다. 전쟁은 청과 일본이 벌였으나 그 전쟁터는 조선이었다.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청일전쟁 관련 유물



일청전투화보(日淸戰鬪畫報)

메이지 27년(1894년) 10월 18일 인쇄되고, 21일에 발행된 일청전투화보이다. 풍도해전에서 청국함대를 격침하는 장면이 삽화로 실려 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였는데, '7월 25일 7시 풍도 근처에서 청나라 병사를 태운 운송선과 군함을 막고 발포하였다. 광을호를 소실시키고 조강호를 포획하였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입장과 청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 달라 광을호가 소실됐는지 도망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삽화에서 고승호에 청나라 국기가 걸려 있는데, 로이드북(고승호 보험회사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고승호는 영국국기기도 장착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삽화에서는 고승호의 영문(Kou Shin으로 추정되나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움)과 한자명(高升)이 배에 크게 적혀 있다. 현재 '고승'의 영문 표기는 'Kow-shing'이며, 한자는 '高升과 '高陞'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는 사진, 화보, 판화, 석판화, 유리전판, 채색 접시, 일청전쟁실기, 고승호 출토유물 등 다양한 청일전쟁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침몰한 고승호

청군 상선인 고승호는 당연히 청나라 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도차이나 기선항해회사(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가 소유한 영국 국적의 증기선이다. 76.2m 2천 134급의 규모로, 1883년에 여객과 화물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최대 해상 보험인수 단체인 영국 로이드(LLOYD)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청군을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맺었다. 고승호는 당시 아산에 있던 청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다구(大沽, 천진의 외항)에서 출발하였다. 이 배에는 약 1천2백여명의 병사가 승선했 있었고, 12문의 대포와 탄약, 군자금에 있었다고 전한다.

수차례 시도된 고승호의 수중 발굴

고승호는 인천 덕적면 울도 서남방 약 2km, 해저 20m 지점(위도 N37°00', 경도 E126°59')에 침몰되어 있다. 서해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가 깊숙이 침몰하게 되면 그 상태가 잘 보존되는 편이지만 조류가 센 바다에서 인양작업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고승호는 배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만점의 금은보화와 보물에 대한 추측

때문에 보물선이라고 불려왔다. 당시 풍도해전의 해상전투 기록과 청나라의 사료에서 군자금으로 쓰일 은 937.5kg이 실려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배를 인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일제강점기부터 수차례 발굴을 시도했으나 깊은 수심과 조류, 기술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하다가 2000년대에 한 민간기업에서 발굴을 시도하게 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작업 끝에 다양한 유물들이 인양되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고승호 출토 유물

고승호에서는 동전, 무기, 도자기, 유리, 선박 자재 등이 인양되었다.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청나라의 군용자금으로 많은 마제은이 유입되었다. 소문처럼 많은 양의 금은보화는 없었지만 마제은으로 추정되는 1냥짜리 은괴가 발견되었다. 그 외 당시 국제화폐 역할을 하던 멕시코 은화, 러시아 적동화와 건륭통보, 광서통보, 가경통보, 관영통보 등 여러 종류의 청·일본 주화도 발굴되었다. 특히 멕시코 은화는 19세기 중국과 무역할 때 대금결제에 많이 쓰였는데 중량이 일정하여 신용도가 높았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은화에 자리를 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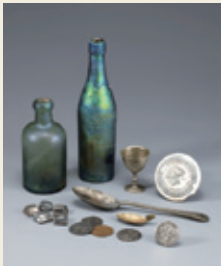
이밖에 소총, 실탄, 탄피, 칼 등 무기 수백여점과

치약용기, 은잔, 술병, 수저, 아편파이프 등 영국제품의 생활용품, 여러 문양이 그려진 다양한 도자기 파편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유물이 인양되었는데도 침몰 장소 하나만으로 침몰한 배가 정말 '고승호'라고 단정짓기엔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굴된 유물들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증거가 눈에 띈다. 바로 은제순가락과 도자기 파편 일부이다. 이 유물들에서 고승호 제작회사인 '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 회사명과 회사를 상징하는 깃발이 확인되어 침몰한 배가 고승호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두고 벌인 청일전쟁은 역사로 남았지만 그 흔적은 당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역사라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고승호와 관련하여 기획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고승호와 관련된 이야기와 유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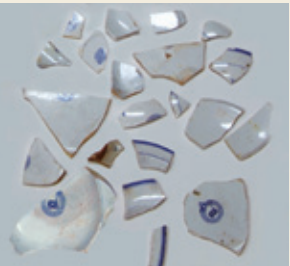
글 • 이현진(유물관리부)



고승호 출토유물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고승호 제작회사의 마크가 새겨진 출토유물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청일전쟁 화보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프랑스 신문 'Le Petit Journal'의 삽화. 일본군에게 격침 당한 중국 배라고 적혀 있다.



청일전쟁 사진

수송단대를 태운 운송선 9척이 군함 요시노 이하의 호위를 받으면서 인천에 도착하는 모습



일청전투화보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동학당 봉기 및 풍도해전 약도

‘개항장과 산업단지를 넘어 인문도시로’ 인천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은 한국의 각 도시에 인문학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적인 사업이다. 인천은 2014년 10월 인문도시로 지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여 운영하는 인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남구청, 동구의 스페이스빔,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한다.

2014년 10월 31일 ‘개항장과 산업단지를 넘어 인문도시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야심차게 출발한 이번 사업은 인천 근현대를 통틀어 가장 주목 받아온 개항장이 아닌 그 배후지역 남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중구 개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남구·동구 일대에 인문학적 가치를 배양하자라는 취지로 연차별로 남구·동구 중 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실 어느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적 자생력을 함양한다는 목적이 이상적이긴 하다. 그것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목표는 지역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마을 살리기’, ‘마을 활성화’ 보다 ‘마을에 살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업에서 우리 박물관은 거주지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주민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길에서, 슈퍼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주차장에서 마주하는 지역의 얼굴·모습을 통해 소소한 감정을 찾고, 살아감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1차 년도에 해당하는 올해 타킷은 일명 ‘토지금고’라고 불리는 남구 용현2동과 5동 일대이다. 용현동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비랑리, 비랭이, 일제 강점기에는 독정리, 비랑리(이후 용정리)라고 불리었다. 낙섬, 염전, 토지개발 등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먼저, 주민과 함께 토지금고 일대의 인문학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 교육을 통해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로 육성된 마을커뮤니티를 통해 주민들과 인문학적 콘텐츠를 공유하며, 세 번째로 마을 축제를 기획하여 그동안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마을 전시와 주민 포럼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한다. 물론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마을 자생력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함께할 예정이다.

우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개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흔적 만들기’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탐구생활’은 용현동 일대 초·중학교와 함께 마을을 위한 창작물을 제작한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는 용현동 일대를 기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금고 인문학강좌’와 ‘타박타박, 인천’은 용현동 곳곳을 알아보고 탐방하며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낸다.(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어 있다.)

	스페이스 빔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문학강좌	-	① 인천 도시인문학 ② 찾아가는 골목길 인문학	① 우리동네 흔적 만들기 ② 도시탐구생활 ③ 토지금고 인문학강좌
인문체험	① 살아져라, 골목길 ② 되살리자, 골목길 문화	① 골목길 추억노트 만들기	① 상상놀이터 ② 타박타박, 인천
인문주간	토지금고 마을 축제(2015.10.26-10.31)		

이번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다행히도 용현5동과 용현2동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매우 높아 앞으로가 기대된다.

참고·인천 인문도시지원사업단 : <https://www.facebook.com/inuct?fref=nl>

글·오아란(전시교육부)



시외버스터비널



조선염업주식회사 및 인천염전 전경(1933년 인천부사 수록)

니시키에 (錦絵)로 보는 전쟁과 일본

글 • 김경리(건국대 아시아콘텐츠 연구소)

그림 1) 조선사건일정대적전지도제일(朝鮮事件日清大激戰之圖第壹) 성환 전투, 내무성 검열 완료, 1894, 8월, 제작과 인쇄 우타가와 구니마사(歌川國政),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그림 2) 정한론지도(征韓論之圖), 국립국회도서관
그림 3) 정한론지도(征韓論之圖),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 요슈 치카노부(楊洲周延) 그림, 1877년 8, 11 (가격 6전, 현재 2,500원 정도)
그림 4) 일청한귀현어초상(日淸韓貴顯御肖像), 1894, 9월, 순사이 도시마시(春齋年昌),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21세기의 정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기사, 사진, 동영상으로 전 세계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가, 민족, 종교 간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접한다. 그렇지만 20세기의 정보는 신문과 사진이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는 카메라와 윤전기라는 ‘문명’의 이기들이 발명되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사진과 신문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매스미디어 본연의 기능은 정보의 대량생산이므로 이것이 가능한 분야는 판화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다색의 목판화 니시키에가 급변하던 메이지시기의 수많은 정보들을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확산시키는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해냈다.

니시키에와 매스미디어

미술작품으로서의 판화는 19세기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내셔널리즘에 부합되는 국가적인 프로파간다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매스미디어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페리(Matthew Clabraith Perry, 1974-1858)의 구로부네(黒舟)로 인해 한 발의 충성도 없이 개국을 한 일본에 있어서 서구열강의 ‘문명’을 모방해가는 근대화 과정은 니시키에(錦絵)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원래 다이쇼고요미(大小曆)¹⁾를 표기한 간단한 그림에서 출발한 우키요에(浮世絵)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그리면서 문맹률이 낮았던 당시 일반 민중들의 정보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의 다색판화(多色版畫)로 발전된 것이 니시키에이다. 시기적으로 파급력을 잃어가던 니시키에는 막말(幕末) 1859년 가나가와조약(神奈川條約)

으로 요코하마(横浜) 개항이라는 새로운 화제(畫題)로 다시 한 번 황금기를 맞는다. 이국(異國)의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 이후 메이지10년대 수도 도쿄(東京) 조성, 메이지 20년대 메이지천황(明治天皇)체제 강화와 국가 체제 정비, 메이지30년대의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95) 마지막 메이지40년대의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5)과 같이 개항기부터 러일전쟁까지 근대일본 전 기간을 통한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 매체였다. 그러나 1890년에 들어서서 석판(石版)과 동판(銅版)으로 변화를 보이고 20세기 초에는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시모오카 렌쵸(下岡蓮杖)의 사진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러일전쟁 보도는 사진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니시키에는 개항이후부터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유입된 서구문화, 비밀상적인 전쟁터의 정보를

- 1) 태음력을 사용하던 시기에 30일까지 있는 큰달과 29일까지 있던 작을 달을 표기하던 그림.
- 2) 飛鳥井雅道, 『鹿鳴館』, 岩波書店, 1992, p22. 1871년 나고야(名古屋)에 살고 있던 14세의 초보우치 소오(坪内逍通)는 메이지유신정부에 출사했던 형이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선물 보따리에는 박쥐우산, 소프트모자, 프란셀 모직, 나이프, 비누, 다양한 색깔의 연필, 나고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각종 서양수첩, 최근 간행된 에도니시키에(江戸錦絵), 신도쿄 후조쿠에(新東京風俗畫), 서양 불쏘시개 나무로 불리던 상냥 등을 처음 볼 수 있었다. 초보우치는 이 선물로 문명개화를 처음 실감했다. 당시 나고야는 도쿄까지 4~5일이 걸리고 대도시로 전환되었음에도 문명개화를 실감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니시키에는 미야게모노(土産物)의 대표로 이것을 보고 도쿄를 상상하고 개화 분위기를 느꼈다.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의 이점을 살려서 메이지정부의 프로파간다로 이용되었다. 니시키에가 시각이미지 형태의 저가 복제판화물이라는 점에서 정보와 문화적 계급성을 탈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조시아(絵双紙屋)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도쿄여행의 중요한 선물로 활용되어²⁾ 대상과 지역의 차별 없는 대중성을 획득하면서 매스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니시키에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출판사와 니시키에시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대량 생산되는 니시키에 이미지는 1870년 이후 에조시아 카카리나누세(絵双紙屋掛主)의 아라타메인(改印)이라는 검열제도를 거치지만 1875년(明治8)의 신 출판조령(出版條令) 이후에는 이 역시 사라진다.

[그림1]은 1894년 청일전쟁을 그린 니시키에로 시기적으로 검열제도가 없던 시기였음에도 내무성 검열을 마쳤다는 표시가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일전쟁니시키에 중 내무성검열완료(内務省検閲済) 또는 내무성검열허가(務省検閲許可)이라는 검열을 거친 표시가 적힌 작품이 6종류 남아 있다.³⁾ 이는 근대 일본이 경험한 비밀상적인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문명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표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련된 서구식 군복, 서구화된 군 장비, 서구인과 동일한 신체비율로 묘사된 일본 지휘관과 변발에 전통 의상의 무기력한 청국병사와의 대비는 끊임없이 ‘근대화’라는 키워드를 중층화시켜 나간다. 더불어 메이지천황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근대화된 ‘일본’과 ‘일본국민’이라는 내셔널리즘의 표상이 대외전쟁에 속에 집약되어 보여져야 한다는 점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특히 3매 연작 시리즈 니시키에를 읽는 시선은 에마키(絵巻)와 같이 우측에서 좌측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화면 우측 1면에 제목과 중요내용이 오는 빈도가 높다. 위의 그림 제목이 보여주듯이 전투는 조선의 앞바다, 성환, 인천, 평양으로 이어지는 조선 내륙에서 진행됨에도 조선을 교전 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조선사건(朝鮮事件)’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니시키에 제목이 내셔널리즘의 극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인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위해 출판사와 니시키에시는 국민이 ‘보고 싶어’하고 국가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자가검열을 거치면서 선택적으로 생산했다. 니시키에시는 출판사 한모토(版元)의 니시키에 수요 창출을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에 부응하여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사실보다 과장하고 상상하고 역사적 화제(畫題)를 빌려 풍자하며 또한 현재의 광고(PPL)와



같은 표현기법은 물론 잘 팔리는 다른 작품도 끊임없이 복제가 반복되었다.⁴⁾ [그림2, 3]도 동일 화가이지만 스리시(刷り師)가 색 배합을 달리한 별쇄본이 있다.⁵⁾

강요되는 시선

메이지초기의 정한론(征韓論)과 청일, 러일전쟁이라는 두 번의 대외전쟁을 그린 니시키에 구성은 언제나 동일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메이지정부가 끊임없이 표방했던 근대화가 내적으로 서구문화와 풍속의 서양화(西洋化)였고 이로 인해 완성된 서구제국과의 동일시는 외적으로 식민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문명화된 일본의 표상은 정한론에서는 정한론을 추진하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측과 반대하는 산조대정대신(三条大政大臣)과 이와쿠라(岩倉右大臣) 측의 우열의 관계, 청일전쟁에서는 문명의 일본과 반문명의 청국과 조선, 그리고 러일전쟁에서는 동등해진 근대국가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표로서의 대비로 극명해졌다. 문명의 일본을 상징하는 메이지정부의 고관, 전쟁터의 지휘관의 아이코은 화면 전경에 입상으로 크게 배치하고 또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조선과 청국은 일관되게 화면의 원경에 전통의상을 입고 앉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그려졌다.

[그림2, 3]은 ‘미개’의 조선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니시키에이다. 1871년 특명전권공사로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조선 관리의 무례함을 경험한 외무경 후쿠시마공(副島公)이 이를 조정에 상신한 내용을 둘러싸고 조선에 병사를 파병해야 한다는 회의 모습이다. 눈여겨봐야

- 3) 출고, 『시각이미지를 통한 근대일본의 표상연구—개항기부터 메이지시대까지—』,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2. 『朝鮮事件 日清大激戰之圖 第壹』, 『日本大勝利成歡ノ戰二淸兵ヲ破』, 『我軍成歡之敵量拔牙山淸兵之根拠奪圖』, 『朝鮮平壤日本大勝利之圖』, 『淸軍敗走軍器分捕之圖』, 『大日本ト淸國ト兩軍平城激戰之圖』이다.
- 4) 오토리공사와 대원군의 광화문 입성을 그린 니시키에는 니시키에시들의 관점에 따라 미세한 부분에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니시키에(우타가와 구니마사)는 『朝鮮京城戰鬪之圖』에서는 배경을 바대로 처리하여 일본의 해군력과 격렬한 전투 신을 강조, 『朝鮮京城之小戰』에서는 해치 상 사이로 마차 타고 가는 오토리공사와 말 타고 가는 대원군을 대비시켜 조선의 최고 통치자를 무시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양국가인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자리매김에 차용된 바다와 군함의 이미지는 식민지 확장에 필요한 남진론과 북진론에 필요불가결한 힘의 상징으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 5) 좌측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이고 우측 시즈오카현중앙도서관(静岡県立中央図書館) 소장본(1877, 8, 11 인쇄)이지만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도 한 장 소장되어 있다. 별쇄본 쪽 배경 막의 보라색과 검은색이 진하고 붉은색이 주색(朱色)에 가까워 콘트라베이스가 전체적으로 강하여 타이들의 표제의 색이 국립국회도서관소장은 3색으로 되어 있다. 시즈오카도서관 소장본은 단색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오래된 영화에서 과거를 배우다

동검도 DRFA 365 예술극장

번역까지 하고, 그 과정까지 디지털 리마스터링 필름이라고 한다. 한 편 복원하는 데 2~3주 이상 걸린다. 작업과정이 힘들어도 깨끗하게 보여질 때와 지저분하게 보여질 때는 천지 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번역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안개 낀 밤의 데이트〉〈부활〉이다. 〈부활〉은 홀스트 부츠홀트가 주연한 〈부활〉이다. 초회극본이다. 지난해 추석 특집이었는데 2주 동안 매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관 라이브러리에는 1만 6,000편의 영화가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400명의 DRFA 회원들이 30~40년에 걸쳐 모은 것이다. 방대한 자료에서 'DRFA에 오면 봐야 될 영화 100편'을 따로 뽑아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영화의 선정 기준은 화귀성, 복원하는 데 아주 힘들었던 것, 학문적·영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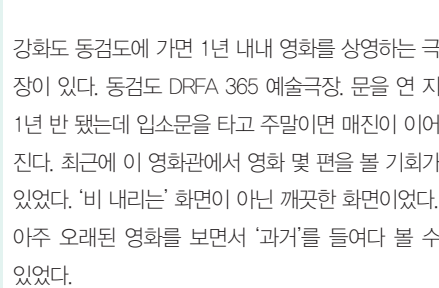
유 감독은 이 극장을 중심으로 동검도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다. 장기적으로는, 〈비정성시〉를 만든 허우샤오시엔 대만 감독 같은 국제적인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강화도에 있는 작은 섬 동검도이지만, 이곳에 아주 강력한 문화 자력이 있다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검도 DRFA 예술극장은 옛사람들의 삶을 저절로 익히는 곳이다.

글/사진 • 김시연



DRFA 365 예술극장 에서 바라본 바다 모습



35석으로 마련된 극장 내부 모습

강화도 동검도에 가면 1년 내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있다. 동검도 DRFA 365 예술극장. 문을 연 지 1년 반 됐는데 입소문을 타고 주말이면 매진이 이어진다. 최근에 이 영화관에서 영화 몇 편을 볼 기회가 있었다. ‘비 내리는’ 화면이 아닌 깨끗한 화면이었다.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면서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애정의 쌀〉(1949년)과 〈목로주점〉(1956년)이 특히 인상 깊었다. 〈애정의 쌀〉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에 이탈리아에서 개봉됐고,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었다. 하루 모내기를 하면 1kg의 쌀을 품상으로 받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모내기에 매달리는 이탈리아 여성들을 보면서 산업화가 한창이던 때 우리나라의 ‘딸’들이 부모와 동생을 위해 산업현장에 뛰어들던 때가 떠올랐다.

〈목로주점〉에서는 루브르박물관의 실내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지 긴 사다리를 놓고 작품을 모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저랬었구나’ 하면서 책에서 읽어내기 힘든 내용을 영상을 통해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아쉽게도 이 극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영화는 상영하지 않는다.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 경영 부분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누군가 저작권료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준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은 영화관 측이 돈을 더 벌길

이후부터 매월 6회의 승마훈련을 시작하고 1872년부터는 직접 지휘하는 군사훈련이 개시되면서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도모한다. 1873년부터는 단발한 군복차림으로 어진영(御眞影)을 촬영하고⁶⁾ 그 어진영은 니시키에 속에서 서구인 체구와 용모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를 보였다. 메이지천황은 메이지 정부를 대변하는 다양한 대리표상이었기에 국민들은 값싼 니시키에 속에서 쇠고기와 단팥빵을 먹는 천황, 황후와 나란히 하는 일부일처제의 천황, 히로시마 대본영에서의 강력한 천황, 야스쿠니신사에서의 단란한 가족 속의 천황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쟁터에서도 메이지천황은 분투하는 지휘관, 죽어가면서도 충의를 다하는 용맹미담의 히로이즘(heroism)을 불러일으키는 일개 병사, 만세일계를 뜻하는 소나무, 후지산, 옥일기, 국화문장(16겹)으로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대리 표상의 구심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메이지천황은 근대일본의 일상과 비밀상적인 세계 속에서 일본과 일본국민의 대리표상으로 동일시되었다. [그림4]의 정중앙 메달리온의 메이지천황과 그 뒤의 일복국기와 옥일기, 우측의 고종황제, 좌측에 청국황제 광서제(光緒帝) 모습이 보여주는 표상은 동아시아에서 선취한 ‘제국’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와 같이 동아시아 3국 통수권자의 어진영과 달리 [그림2, 3]에서는 등장인물 수에 비해 이름을 적은 단자쿠(短冊)가 하나 적는데 이는 메이지천황을 중앙에 얼굴만 작게 보이도록 그리고 이름은 명기하지 않는 재미있는 트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메이지천황은 근대일본의 일상과 비밀상을 아우르는 시각이미지 속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순환을 계속했다.

일본의 니시키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로 보고 싶은 내용을 집중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판화로 사실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에 자포니즘(Japonisme)이라는 문화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19세기 막말부터 메이지시기의 뽀농을 수 없는 미술과 매스미디어의 보고이다. 문명과 미개라는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논리에 동침한 메이지정부와 출판사, 그리고 니시키에서들에 의해 일반 국민들에게 더 쉽고 간단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스미디어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값싼 판화복제물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성 담보를 위해 니시키에 속에 종군기자까지 등장시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밀상적인 전쟁을 니시키에의 주제로 적극 수용하여 일본 국민에게 ‘국가’와 ‘전쟁’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내셔널리즘 강화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했다. 일본 국민이 보고 싶고, 메이지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순간만을 표현한 화려한 색채와 과장된 표상들이 내셔널리즘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의 알레고리로 충분히 작용했다.

6) 19세기 유럽의 군주 즉 나폴레옹3세, 프러시아 국왕도 대부분 정장은 군복차림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 1872년 태정관포고서에 의해 대례복(군복), 통상예복(연미복)의 양장채용을 확정했고 1886년에는 통상예복 대용으로 통상복 프록코트로 대체되었다. 여성복장은 대례복 망트드쿨(manteau de cour), 중례복 로브데콜레테(robe décolletée), 통상예복 로브몬타нте(robe montante)와 같은 기초가 정해졌다. 日野西資孝 編 『日本の美術 No.26 服飾』, 至文堂, 1968 참조



그림 4

할 것은 정한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정중앙 전면에 모자도 안 쓴 채 정면으로 독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얼굴은 중앙 테이블로 향해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야말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독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정한론을 불평하는 산조와 이와쿠라대신, 메이지천황은 원경에 작게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 구도는 청일전쟁니시키에에서도 지휘관은 물론 일개 병사까지 공격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전경 중앙에, 조선과 청국은 전통복장 안에 손을 넣은 채 원경에 작게 나약하게 그려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러일전쟁니시키에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완성된 근대국가로서 러시아와 동등한 위치를 점유한 제국일본은 기존의 신체로 드러나는 일차원적인 표상보다는 근대성에서 가장 요구되는 과학적 산물의 표상에 집중했다. 과학의 축적인 함대공격으로 침몰해가는 러시아해군, 특히 발틱함대를 침몰시키는 이미지는 조선과 청국의 전통복장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러일강화회담을 그린 장면에서도 회의장, 각국 대표가 착용한 복장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차이점은 없지만 일본 대표를 우측에 서 있도록 한 구도에서 우측을 더 우선시하는 관념이 드러나 있다. 또한 회의장 참석자들의 얼굴이 서 있는 일본 대표를 향해 있다는 점이 역동성을 보이며 독자의 시선도 함께 따라가는 동일시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니시키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독자의 시선을 서구와 동일한 강한 제국일본으로 한정짓는 내셔널리즘 표상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메이지천황

[그림4]는 1895년 3월 19일 청의 전권단인 리홍장(李鴻章) 일행의 시모노세키 강화회담과 4월의 강화조약 이후의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초상화이다. 정중앙의 메달리온 속의 메이지천황은 대례복 군복모습으로 동아시아에서 제국을 선취하여 완성된 근대일본, 제국일본의 구심점이자 일본과 일본국민을 대리 표상하는 주체로 보여지고 있다. 어린 16세의 메이지천황은 그동안 전통문화 속에서 화장을 하는 여성적인 모습이었지만 1868년 3월

인천을 알리는 로고들

글 • 3기 청소년 기자
정민섭(인하대 부속고)
문다빈(고잔고)
멘토 • 문은희(숙명여대)

이번 ‘봄’호 청소년 기획기사는 인천을 대표하는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디자인? 인천을 대표하는 디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멋진 건물의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상품의 디자인일 수 도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로고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의 숨겨진 의미를 알려 드려고 합니다.

1. 인천광역시 로고



인천시에 산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디자인 인천광역시 상징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로고로

저 둥근 모양은 인천의 ‘ㅇ’을 상징하며 오른쪽 테두리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양은 한자인 내천(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왜 내천(川)을 쓰는지 의문하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것입니다. 인천은 그다지 강으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하류가 존재해서가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인천이 인천이란 이름을 가질 당시, 한강 하류 유역은 인천의 관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천(川)자가 들어갔을까요? 인천의 한자 뜻인 ‘仁川’에서 川자는 사실 인천의 옛 지명 인주(仁州)의 고을 주(州)에서 점 세 개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빛이 흐르는 듯한 모습은 바다의 파도를 상징합니다. 더불어 인천의 바다와 같은 끊임없고 힘찬 움직임과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마크를 통해 인천시가 알려려고 하는 것:
- 항만, 공항을 통해 상품과 정보들이 모여드는 선진 교류도시 인천
-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인 인천

2. 인천직할시 로고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인천시의 옛 로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천이 직할시였을 무렵에 사용된 마크였기에 아

마도 우리 같은 청소년들은 이 로고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로고 모양은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를 뜻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로고를 서울과 영등포 생활권인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상수도 맨홀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광명시에 소재한 노온정수장이 2008년까지는 인천광역시 관할이었기 때문입니다.

3. 인천광역시 워드 마크



워드마크는 간단한 단어를 디자인하여 꾸민 상징 로고 중 하나입니다. 인천의 워드 마크는

인천국제공항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마크의 ‘Fly’는 인천의 시조인 두루미의 날갯짓을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묘사하고 또 파란 물결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뻗어나가는 인천의 미래를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4.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엠블렘

엠블렘의 날개 모습은 Asia의 ‘A’를 사람으로 형상화 한 모습이며 불타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밝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 전 세계인의 화합을 희망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초록색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을, 파란색은 인천의 하늘과 바다, 첨단도시를 상징하며 인천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고딕체는 인천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상징합니다.

5.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엠블렘

‘성화’의 모습을 표현하여 열정과 감동, 화합을 전달하는 진정한 스포츠대회로서의 가치를 강조했고 성화의 불을 통해 하나되는 아시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불꽃의 모습은 참가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색채의 조화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 아시아인들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아시안 게임의 취지가 아시아인들의 화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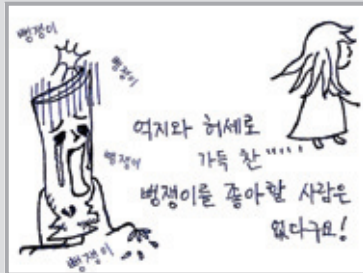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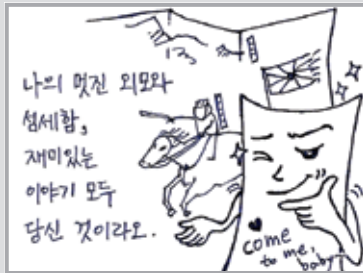
6.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로고

유네스코에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이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고 1890년대 이미 근대적 활판인쇄술과 전국 신문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통해 인천이 오래된 인쇄 역사를 가진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하나 되는 세상’이 주제인 이번 로고는 무한대로 펼쳐지는 책을 형상화하여 책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천의 바다를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 분야에 흥미가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겨서 인천의 로고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 로고들 모두 일상에서 날마다 봐온 그림들이었지만 조사를 시작한 후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떤 지역이나 대회 등을 대표하는 그림정도로만 여겼다면 지금은 하나의 로고 안에 모양, 색, 글씨체 등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행사의 성격 등 작은 부분 하나까지 깊은 의미를 담아 디자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로고 하나로 인천의 이미지뿐 아니라 지형적 특징까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인천과 관련된 로고들을 찾아보면 바다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청색이 쓰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다가 인천의 대표적인 지형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인천이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의 지속을 위한 본보기가 되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긋난 인연-일본 니시키에

만화 • 조유미(전시교육부)



가자! 박물관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으로 간다!



4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까지 1년 12개월 중 학기 중인 8개월간은 전시실이 유난히 활기를 띤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단체 교육프로그램인 <가자! 박물관으로>에 참여하는 학생들 덕분이다.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다년간 학교와 학생들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프로그램은 인천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무엇보다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연계 프로그램으로 전시감상·애니메이션·게임·만들기 등을 활용하여 지루할 틈 없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8년 동안 운영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가자! 박물관으로>는 변화를 많이 겪었고, 또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묶어 3개의 주제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2년부터는 각 학년의 수준에 맞춰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해졌다. 발달단계에 따라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즐겁게 박물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수용 가능한 학급수와 교통문제 때문인데, 이 중 원거리 학교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차량 지원을 실시하여 운영 중이며, 지원 차

량의 수를 늘려 좀 더 많은 학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해마다 100여개의 학급, 약 2,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자! 박물관으로>, 한두 시간 동안 진행 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우리는 다음 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자고 인사를 나눈다. 우리 박물관은 늘 새롭고 유익한 요소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 즐겁고, 학생들은 편하게 놀다가니 좋다. 박물관은 조용하고 엄숙하기만 한 곳이 아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가자! 인천시립박물관으로.

글•안정은(전시교육부)

초등학생단체 교육프로그램 가자! 박물관으로 안내			
교육일시 4월~7월 / 9월~12월, 화요일~금요일(10시~12시)			
교육대상 초등학교 단체 25명 내외(회당 1학급) 교육비 무료(왕복 수송차량 및 활동지, 체험재료 제공)			
교육내용			
대 상	주 제	내 용	소요시간
1학년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안내 - 애니메이션관람 - 두루미 종이접기 - 발표 및 뒤통리	1시간
2학년	영차, 영차! 집을 짓자	안내 - 기와지붕과 막새탐구 - 전시감상 -나만의 지붕 꾸미기 - 뒤통리	1시간
3학년	박물관의 보물을 부탁해	안내 - 보물찾기 - 정답확인 및 발표 - OX퀴즈 - 뒤통리	2시간
4학년	출동! 박물관 미션왕	안내 - 미션 수행 - 정답확인 - 스피드퀴즈 - 뒤통리	2시간
5학년	박물관 탐험대	안내 - 전시실탐험 - 정답확인 - 탐험지도 만들기 - 뒤통리	2시간
6학년	박물관의 특종을 잡아라	안내 - 취재 - 토론 및 신문 만들기 - 발표 - 뒤통리	2시간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고승호(가제) 주제 고승호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과 잊혀진 역사 기간 2015. 5. 27(수)~7. 19(일) 장소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뮤지엄+드림캐쳐 제17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기간 2015. 5~7월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장소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내용 특별전시「고승호」연계 강좌 대상 성인 신청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수강 신청 (※선착순 마감) 문의 440-6733
성인답사 타박타박, 인천 기간 2015. 4. 19 / 6. 14(일) 오후 2사~5시 장소 인천 부평구, 동구 일대 내용 4월 19일 : '인천과 부평의 경계를 따라서' 6월 14일 : '깡이부리, 유원지에서 공장지대로' 대상 20세 이상 성인 회당 20명 신청 교육이 있는 주 월요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440-6734	인문도시지원사업 어린이 교육 우리동네 흔적 만들기 주제 남구에서 쉬어가기 기간 상반기 : 2015. 5~6월 하반기 : 미정(추후 공지) 대상 초등학교 단체 장소 박물관, 해당 학교 및 남구 일대 신청 일정 협의 후 신청서 공문 접수 청소년 교육 도시탐구생활 주제 Community Map-우리 동네 지도 제작 내용 테마별 동네 탐구 후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지도 만들기 기간 2015. 4~10월 대상 중학교 단체 장소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일대 신청 일정 협의 후 신청서 공문 접수 상상놀이터 기간 상반기 2015. 5~6월, 하반기 12월 대상 상반기 :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40명 하반기 : 관내 중학교 3학년 청소년 60명 주제 Memorial Trip-지금을 기억하라 내용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될 지금 인천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모듬별로 기억해야 하는 지금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남기기 위한 창작물 제작 장소 박물관 및 인천 일대 성인 교육 토지금고 인문학강좌 주제 토지금고를 열이라 내용 토지금고와 관련된 역사문화 주제 강의 기간 2015. 5. 11~6. 22, 매주 월요일, 10사~12시 대상 용현2동·5동 주민 40~80명 장소 추후 공지 신청 추후 공지



조선국풍도충일청대격전지도(朝鮮國豐嶋沖日清大激戰之圖)

글·안성희(검단선사박물관)

소장유물

1894년, 역사2실, 가로 71.0cm 세로 35.2cm

전투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군함의 포는 적을 향해 모두 열려 있고 배 위에서는 병사들이 연신 총을 쏘아댄다. 비교적 잔잔한 파도가 치는 날이지만 막 침몰하고 있는 배와 병사들의 발포를 힘주어 독려하는 지휘관의 격렬한 몸짓으로 수면에는 거친 파도가 일어난다. 고향치는 사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등이 생겨나면서 소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총포의 연무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득 피어오른다.

이 그림은 청일전쟁(1894~1895)의 시작이 된 풍도 앞바다의 긴박했던 전투상황을 묘사한 니시키에(錦繪)이다. 1894년 7월 25일 일본 순양함 요시노호·아키텐시마호·나니와호는 청국 군함 제원호·광을호·조강호, 상선 고승호를 공격하였다. 그림에서는 청일 양군의 함선명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화약고가 폭발하여 좌초되었다고 하는 광을호 등과의 전투장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내용, 등장인물 등을 표기한 다른 니시키에와 달리 이 그림 자체가 가진 서지정보는 간략한 편이다. 우측 상단에 자리한 ‘朝鮮國豐嶋沖日清大激戰之圖’ 표제가 풍도해전이라는 그림의 주제를 나타내며, 군함 사이로 보이는 ‘仁川’, ‘牙山’ 지명은 사건의 발생지역을 알려준

다. 좌측 하단으로는 메이지27년(1894) 8월 1일 일본 히로바시에서 히구치 신타로(樋口鑑太郎)가 인쇄, 발행했다는 출판정보가 기재되었다. 풍도해전이 7월 25일 발발하여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8월 1일 판화로 인쇄, 출판된 사실은 당시 보도매체로서의 니시키에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8월 1일은 일본이 정식으로 청에 선전포고를 한 날로서 이 날 풍도에서의 승리를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판화작가는 요사이 노부카즈(楊斎延一, 1872~1944)인데 그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를 다수 작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니시키에는 에도시대 성행한 풍속화, 우키요에(浮世繪)의 일종으로 다색판화를 뜻한다. 미인(도시) 풍경 혹은 역사·소설의 장면을 그려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에도말기부터는 보도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정한론·임오군란·갑오개혁·청일전쟁·러일전쟁 등의 그림이 그려져 근대 일본의 왜곡된 조선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본 유물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을 부차적으로 표기하여 일본과 청국의 전쟁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제목방

식, 작게 표시된 지명과 육지 표현 외에 조선 자체를 풍도해전에서 삭제해버린 점 등이 그러하다. 조선-일본·청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청국 사이에서도 일본을 부각시키고 영웅적으로 묘사한 방식은 유효하다. 3매 연속 화면의 2/3는 육일승천기와 일장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거대한 함선과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정연하게 사격을 하는 일본해군의 위풍당당한 전투장면에 할애하고 있다. 반면 청국군사는 변변한 지휘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듯 보인다. 뒤로는 돛대가 부러지거나 침몰의 때를 맞이한 청국 군함을 포착하고 있다. 청일전쟁 니시키에가 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표출되는 순간이라 하겠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는 〈조선국풍도충일청대격전지도〉 외에도 아산·성환·평양 등 청일전쟁 주요전선의 니시키에가 여러 점 소장되어 있다. 인천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풍도에서 시작한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상륙거점이자 물자보급기지로 활용되고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게 개항장의 상권을 장악당한 인천의 지역적·역사적 특수성과 맞물려 봐서도 좀 더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